

CES 2021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 혁신제품·지속가능 미래공유

SAMSUNG

삼성 제트봇 AI 인텔 AI 솔루션
최적경로 자율주행 로봇청소기
삼성봇 핸디 다양한 집안일 도움
스스로 물체 위치·형태 인식



제트봇 AI 스마트싱스 펫 서비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더욱 행복해지는 새로운 일상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 CES 2021에서 삼성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제는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이다.

삼성전자는 온라인을 통해 혁신 제품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를 주관한 삼성리서치 승현준 사장은 “코로나19가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 등 ‘새로운 일상’과 위기를 가져왔으나, 이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일상(Better Normal)’으로 나아가고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여기에 삼성전자가 사람 중심의 기술과 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몰래 준비한 무기는 로봇이었다. 새로운 인공지능(AI) 가전

인 ‘삼성 제트봇 AI’가 주인공이다.

제트봇 AI는 세계 최초로 인텔 AI 솔루션을 탑재한 로봇 청소기다. 사물 인식 기술로 주변 물체를 스스로 식별하며 최적의 청소 경로를 찾아 자율주행한다. 라이다와 3D 센서 등을 장착했으며, ‘스마트싱스 펫’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반려동물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봇 핸디’도 처음 선보였다. 스스로 물체 위치나 형태를 인식해 잡거나 옮길 수 있다. 식사 전 테이블 세팅과 식사 후 식기 정리 등 다양한 집안일도 가능한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다.

삼성봇케어업그레이드 버전도 나왔다. CES2019에서 처음 공개된 로봇으로, 노약자를 돌보는 것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에도 일정 관리

와 헬스케어, 교육과 화상 미팅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는 종전에 선보였던 삼성봇 서빙과 고객 응대 로봇 삼성봇 가이드,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쟈스 등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비스포크 냉장고와 마이크로 LED TV 등 새로운 TV 라인업을 소개하며 미래 시대 새로운 삶을 상상했다.

승현준 사장은 “로봇은 AI 기반의 개인화된 서비스의 정점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된 결합을 통해 개인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 e스포츠 투자... 마케팅 영역 확장

젠지 이스포츠와 파트너십 체결

LG전자가 e스포츠에 투자하며 마케팅 영역을 넓힌다.

LG전자는 e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젠지 이스포츠는 한국과 미국,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e스포츠팀 운영업체다.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 리그에서 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 중이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e스포츠 전문 교

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젠지 이스포츠와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 ▲LG 울트라기어 브랜드를 통한 MZ세대와 활발한 소통 ▲LG 울트라기어 브랜드가치 제고 등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LG전자는 ‘승리를 안겨주는 최강의 무기’라는 슬로건으로 LG 울트라기어를 게임 전용 브랜드로 론칭, 세계 최초 4K IPS 패널 게이밍 모니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김재웅 기자

롯데케미칼, 엔지니어드스톤 생산 확대

터키 벨렌코 공장 생산라인 증설

롯데케미칼이 인조대리석 소재인 엔지니어드스톤을 생산하는 터키 ‘벨렌코’ 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설했다.

롯데케미칼은 11일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연 12만 매 생산규모의 3호라인을 증설완료해 1월 말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조대리석은 주방, 욕실 등의 실내 공간부터 건물 외관에까지 두루 사용되는 건축물 내·외장재로서, 내구성과 강도, 위생성, 다양한 컬러 구현까지 모두 갖춘 프리미엄 인테리어 소재다.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구 롯데첨단소재)에 2019년 인수된 벨렌코사는 터키 엔지니어드스톤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기존 2개 라인 23만 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번 증설을 통해 35만 매까지 생산규모를



롯데케미칼 엔지니어드스톤 ‘마르퀴나라바나’가 적용된 사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롯데케미칼은 엔지니어드스톤 해외 생산기지인 벨렌코사의 생산규모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급성장 중인 북미 인테리어 소재 시장과 유럽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또한 연 9만 매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는 국내 여수공장은 차별화된 엔지니어드스톤 신제품을 적극 개발해 고부가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펼쳐지고 말려지고... ‘롤러블폰’ 첫 공개

LG전자

홈 라이프 주제 프레스 컨퍼런스
권봉석 사장 “소중한 일상 지킬 것”



프레스 컨퍼런스에 나온 LG전자 권봉석 사장. /LG전자

LG전자가 미래 ‘뉴노멀’ 시대에 걸 맞는 편안한 홈라이프를 제시했다.

LG전자는 11일(현지시간) CES 2021에서 ‘소중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LG와 함께 홈 라이프를 편안하게 누리세요(Life is ON - Make yourself @ Home)’를 주제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권봉석 사장은 영상 내레이터로 등장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편리와 재미는 물론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며 “LG전자는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인사했다.

행사는 “Life is ON(소중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슬로건으로 시작됐으며, 글로벌마케팅센터장 김진홍 전무, 미국법인 페기 양 마케팅담당, 북미미노베이션센터 사무엘 장상무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이어서 등

장했다.

이들은 “LG전자만의 차별화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영감에서 시작됐다”며 뉴노멀 시대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며, 최근 집에서 일하고, 배우고, 즐기고, 쇼핑하는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일상에서 ‘집’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고객이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안심, 편리, 재미 등 다양한 가치들을 소개했다.

우선 행사에는 ‘LG 롤러블’이 공식적으로 소개됐다. 제품이 펼쳐지

고 말려 들어가는 장면을 2차례 노출하는 방식이다. 컨퍼런스 마지막에는 ‘모어 투 익스플로러’라는 메시지를 통해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2번째 제품인 롤러블 폰 ‘LG 롤러블’ 존재를 확인했다.

인공지능(AI)도 이번 행사에서 핵심 주제였다. LG전자가 디자인한 김래이를 연사로 불러들인 것. 김래이는 딥러닝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인간으로, 미국 출시를 앞둔 로봇 ‘LG 클로이 살균봇’과 LG그램, LG 울트라와인 올레드 프로 모니터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LG 씽큐 앱도 생태계를 확대했다. 글로벌 식품 업체 네슬레와 크래프트 하인즈와 협력 체계를 발표하면서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식품 바코드를 촬영해 최적 조리법을 찾는 ‘인공지능쿡’ 기능도 소개했다. 미국 홈어드바이저와 제휴해 씽큐 앱으로 가전 이동을 의뢰하는 서비스도 보여줬다.

아울러 LG전자는 올레드 이보와 LG QNED 등 최근 소개한 다양한 신제품을 CES2021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한다.

/김재웅기자



(주)한화 기계에서 새롭게 출시한 협동로봇 HCR 어드밴스드 모델 3종.

한화, 협동로봇 신제품·솔루션 출시

HCR 어드밴스드 모델 3종
호환성·안전성 대폭 강화

한화 기계 부문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협동로봇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기계부문의 협동로봇 신제품과 협동로봇 솔루션 패키지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동로봇 신제품인 ‘HCR 어드밴스드’ 모델은 작업 중량에 따라 3종으로 출시됐다. 기본 HCR 시리즈의 디자인과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호환성과 안전성은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전자, 식품·의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층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협동로봇 솔루션 패키지 ‘어드밴스드 솔루션’에는 한화의 인공지능(AI)

과 모빌리티 역량이 결합됐다. 고객은 5개 솔루션 중 작업 형태와 생산 공정에 맞춰 원하는 제품을 개별 구매할 수 있다.

솔루션 중 하나인 RAIV(Robot AI 3D Vision)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협동로봇 AI 시각 솔루션으로, 3차원(3D) 카메라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한화는 소개했다.

모빌리티는 한화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자율주행 작업차인 ‘LGV’에 자율이동로봇인 ‘AMR’을 결합한 솔루션으로 협동로봇의 작업 중량 한계를 극복해주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여준다.

육경석 한화 대표이사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협동로봇의 대중화를 이끌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